

2월 25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2월 25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버냉키 발언’ 뉴욕 급등..다우 3.3%↑ [다우: 7,350.94 (+ 3.32%)	24일(현지시간) 뉴욕 주식시장이 급반등하여 주요 지수는 일제히 4% 안팎의 상승률을 기록. 전날 12년만에 최저치로 떨어진데 따른 반발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세로 출발한 주요 지수는 갈수록 상승폭을 확대, 일일 최고점 수준에서 마침.
버냉키, 조기 국유화 일축.."금융 안정돼야 후퇴 올해 끝나"	버냉키 의장은 이날 상원 금융위원회에서 통화 정책 및 경제 상황에 대한 반기 보고를 통해 "엄청난 추가 손실이 실현되지 않는 한 은행 국유화에 나서지 않겠다"며 은행의 조기 국유화 가능성을 일축. 특히 "불필요한 시기에 은행들의 국유화를 공식화 함으로써 프렌차이즈 가치를 훼손하고, 심각한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재차 역설. 이에 따라 "금융시장 안정과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이 요구된다"면서 "경기후퇴를 방어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
20개 대도시 집값 '사상 최대 하락'	지난해 12월 미국의 20개 대도시 주택가격은 사상 최대폭으로 하락. 깊어가는 금융위기와 경기후퇴 여파로 차압이 늘고 판매가 급감하면서 주택시장의 침체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S&P)/케이스-윌러 주택가격 지수에 따르면 20대 대도시의 12월 주택가격은 전년동월대비 18.5% 급락. 이는 지난 2001년 이 지수가 발표되기 시작한 이래 최대 하락폭.
2월 소비심리 '사상 최악'	민간 연구기관인 컨퍼런스보드는 2월 소비자신뢰지수가 전월의 37.4(수정치)에서 25로 하락했다고 밝힘. 이는 지수가 산정되기 시작한 지난 1967년 이후 최저치. 마켓워치와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월가 전망치인 35 수준도 큰 폭으로 하회한 수준.
국제유가, 감산기대로 4%↑..배럴당 39弗 [WTI: \$39.96 (+ \$1.52)	국제유가가 감산 가능성으로 4% 이상 상승하며, 배럴당 40달러 수준에 근접함. 미국의 원유재고가 상승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가능성이 이를 상쇄하면서, 국제 유가 상승을 유발.
日정부, 증시부양 위해 주식 직접 매입	일본 정부가 증시 부양을 위해 공적자금을 활용한 직접적인 주식매입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 최근 증시 급락은 주식을 대량 보유한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이미 악화일로인 일본 경제 추락을 가속화.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은행주 매입공사(Banks' Shareholdings Purchase Corp.)의 매입허용 자산 범위 확대를 고려 중.

제목	주요 내용
엔, 달러대비 급락..미 증시↑, 일 경제↓	미 증시가 급반등하고 일본 경제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달러화 가치가 엔화대비 급등. 엔화가치는 유로 등 다른 주요 통화에 대해서도 약세를 기록. 24일(현지시간) 뉴욕 외환시장에서 오후 4시8분 현재 엔/달러 환율은 전날에 비해 2.17엔(2.29%) 급등(엔화 급락)한 96.78엔에 거래. 엔/달러 환율이 96엔 이상으로 올라간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
한국 시장 개척 나선 EU	오는 6월 시행될 'EU 게이트웨이 프로그램'은 유럽연합 지역에 속한 기업들의 국외 진출을 돕는 대대적인 지원책. 94년 일본 진출 희망 기업에서부터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조만간 한국을 공략하는 회사에도 적용되며 세부 일정은 올해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약 450곳의 유럽 기업이 한국 방문 예정.
한국, 4분기 경제성장률 OECD 최하위	2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OECD 30개 회원국의 작년 4분기 경제성장률(계절조정치)은 전분기 대비 평균 -1.5%인 가운데 우리나라는 -5.6%로 최하위를 기록. 우리나라 성장률은 OECD 회원국 평균 성장률보다 무려 3.7배 낮은 것임. 우리나라는 전분기 대비 작년 1분기에 0.8%, 2분기에 0.8%, 3분기에 0.5% 성장했으나 4분기에 급락했음.
소비심리 나아졌지만..경기전망 여전히 '비관'	한국은행이 전국 2,098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09년 2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월의 소비자심리지수(CSI)는 85로 전달보다 1포인트 상승. 지난해 12월 3포인트 상승에 이어 2개월째 오름세를 보였으며 현재생활형편 및 현재경기판단 지수는 각각 3포인트와 5포인트 상승. 반면 향후경기전망 및 취업기회전망 지수는 1포인트씩 하락.
3월중 자본확충펀드 1차 12조원 조성	총 20조원으로 운영될 자본확충펀드는 다음달 1차로 12조원 규모로 출범할 계획이며,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중소기업 대출 지원이나 기업 구조조정 지원용으로 사용될 예정. 또한 자금운용 용도를 실물지원 및 구조조정 지원으로 의무화하는 대신 경영권 간섭은 배제할 계획.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Theme Analysis



Fixed Income Report

LEADING LIGHT



| 유성엽 팀장

T 2009-7080

E syy@leading.co.kr

| 권효정

T 2009-7085

E hjkwon@leading.co.kr

| 이유진

T 2009-7078

E yjlee@leading.co.kr